

건설공사 발주액 전년 대비 3천억원 감소

도·강원건설단체연합회 설명회
“공사 완벽히 수행 지역 활성화”

강원 건설업계와 주요 발주 공공 기관이 올 한 해 건설공사의 시작을 알렸다.

도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2019년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가 12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63개 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. 이날 기관별 발주계획에 따르면 올해 도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예정한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 규모는 총 4,160건

2조4,936억원으로 집계됐다. 전체 발주액은 전년에 비해 3,857억원 감소했다.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대형 공사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마감된 여파다. 지역 건설업계는 이 같은 발주액 축소에 아쉬움을 남겼다.

오인철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은 “건설업체 수가 늘어난 데 비해 전체 발주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점을 고려해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 등 신규 일감 발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”며 “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정된 각종 건설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윤종현기자 jjong@kwnews.co.kr



도 건설공사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 도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는 12일 춘천 스카이컨벤션 웨딩에서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.